

인간이 술 좋아하는 것은 진화적 유산이다

인간이 술에 끌리는 것은 수백만 년 전 유인원 조상이 발효된 과일을 즐겨 골라 먹었던 것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이라는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이 입증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CSU 노스리지의 인류학자 크리스티나 캠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검은손 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가 발행하는 '왕립학회 오픈 사이언스' (Royal Society Open Science)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파나마 바로콜로라도섬에 서식하는 거미원숭이가 먹다가 버린 호보나무 열매를 수거·분석해 알코올 농도가 1~2% 정도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과일의 당을 먹는 발효균을 통해 자연 발효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미원숭이 6마리의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5마리의 시료에서 알코올의 2차 대사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는 알코올을 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대 과일인 호보나무 열매는 거미원숭이의 주식이자 중남미 원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발효주를 만드는 데도 이용돼 왔다.

캠벨 교수는 "야생 영장류가 인간의 간섭 없이 과일 속의 에탄올을 섭취한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처음으로 보여줬다."면서 "인간의 알코올 소비가 익은 과일을 통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에탄올을 먹어온 영장류의 과일 섭취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술 취한 원숭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은 UC 버클리의 생물학자 로버트 두들리 박사가 2014년 <술 취한 원숭이: 인간은 왜 술을 마시고 남용하나>(The Drunken Monkey: Why We Drink and Abuse Alcohol)라는 저서에서 처음 제시했다. 영장류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 과일을 먹고 있는 검은손 거미원숭이. 사진=shutterstock

알코올 농도가 7%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밝혀졌지만, 책을 출간할 당시에는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다. 캠벨 교수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들리 교수 등과 연구팀을 꾸려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캠벨 교수는 "원숭이들이 칼로리 섭취를 위해 에탄올이 있는 발효된 과일(과일의 발효는 당분이 많아야 가능하므로 칼로리가 매우 높다)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취할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과육으로 배가 채워져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발효된 과일을 통해 먹이에 대한 항균 효과나 효모균 활동, 사전 소화 등과 같은 생리적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조상도 처음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에탄올이 있는 잘 익은 과일을 골라 먹었지만, 알코올을 정제하면서 심리적·쾌락적 효과를 노리고 알코올 남용에 빠지게 된 것으로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인간이 알코올에 끌리는 성향이 영장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를 당뇨나 비만처럼 영양 과다 질환의 하나로 바라보게 한다고 전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송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



(714) 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 Closed
Tue-Sat: 3PM-12AM
Sun: 3PM - 10:30PM